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4. Vol. 9, No. 4, 793 - 814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관계성이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채 정 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이 종 한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주민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개별성-관계성(individuality-relatedness)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18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재 남한 주민들이 개별성보다 관계성을 좀 더 많이 가진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단, 남한 대학생이 보였던 성차는 이들에게서는 드러나지 않은 점은 특이한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북한 이탈 후 이들의 개별성-관계성의 변화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았는데, 중국 등 제 3국 체류 기간이 아주 긴 경우(4년 이상)에는 관계성이 높았고, 남한 내 정착 경과 기간별로는 1년차와 4년차만이 낮았다. 그리고 남한 주민들과의 접촉과 관련해서는 직장인과 학생이 무직보다 관계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개별성-관계성이 남한 주민들과 어울리는데 작용하는 점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각된 차별감과 신뢰감, 자기효능감과 관련지어 보았는데, 개별성은 신뢰감과 정적인 관계를, 관계성은 지각된 차별감과는 부적인 관계를, 자기효능감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후 별도로 개별성과 관계성을 각기 고저로 구분하여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여 심리적 적응 지표를 파악해보았는데,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낮은 유형이 제일 부적응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어 : 문화, 심리적 적응, 북한이탈주민, 개별성, 관계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채정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전화: 02-3290-1636, E-mail: minspin@unitel.co.kr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장호, 1997; 조영아, 2003; 채정민, 2003; 채정민, 김종남, 2004; 채정민, 한성열, 2003 등)가 많이 이루어져서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유형과 심리적 적응 수준(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수준과 심리적 적응 수준(채정민 등, 2004),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아방어기제 유형과 문화의 관련성(조영아, 2003),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수준과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채정민 등, 2003), 대학 생활 적응 행태(조영아, 전우택, 2004)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대한 이해가 미진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내 적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남한 주민들과의 대인관계 상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예, 조영아 등, 2004)가 있는데, 이 과정을 남한 주민들이 집단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만 조명했지,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이 지닌 성향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 성향에 대해서는 이미 채정민(2003)의 연구에서 '자기의식', 채정민 등(2003)의 연구에서 '낙관성'과 같은 성격 변인 형태로 다루어진 적은 있다. 하지만, 남한 주민들과 어울리는데 작용하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변인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주민들과 새롭게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여기에는 기존에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진 개방성(김애순, 1993 등), 외향성(이인수, 함주현, 2003 등), 친밀성(강길호, 이지호, 1998 등), 관계성(김동직, 1999)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개념들은 한꺼번에 다 다루기에는 이들 간 상호 유사성에 의한 중복 영역이 많다는 점 때문에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특정한 변인 하나를 선정하여 심도있게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선택의 기준으로서는 첫째, 실질적인 대인관계 양상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야 한다. 즉,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대인관계에 대한 적극적 시도를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보면 대인관계의 밀착성 측면에서 개방성과 외향성보다는 친밀성과 관계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주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즉, 본 연구가 한 사회 내에서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남한 문화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하는 과정에 있는 현상을 다루고 있으므로 문화 차원에 밀접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을 떠나기 전에 북한에서 성장한 경우를 감안하여 북한 문화의 영향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최근들어 문화와 성격 차원을 동시에 다룰 수 있다고 보고된(예; 김동직, 1999) 관계성 변인을 다루되, 이와 연관되어 다루어지는 개별성 변인까지를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별성과 관계성의 대인관계 적응적 가치

개별성과 관계성 개념은 최근에 조명을 많이 받고 있지만 개념적 뿌리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이미 Freud가 말한 '행복을 지향

하는 이기적 충동'과 '타인과의 결합을 지향하는 충동'에서부터 드러나고, 이후에 Angyal(1951)의 '자율성(autonomy)'과 '조화(homonomy)', Bowen (1966)의 '개별성(individuality)'과 '어울림(togetherness)', Bowlby(1969)의 '분리(separation)'와 '애착(attachment)', Bakan(1966)의 '주도성(agency)'과 '연대성(communion)', McAdams (1980)와 McClelland(1980)의 '권력 혹은 성취동기'와 '친밀 혹은 친화동기', Woike(1994)의 '분리 지향(separate orientation)'과 '연결 지향(connected orientation)', Bem(1974)의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ty)' 등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특히, Dolinger, Preston, O'Brien, DiLalla(1996)는 개별성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Adler의 '우월감의 추구(striving for superiority)'와 Erikson의 '정체감(identity)'을 결부시키고, 관계성을 Adler의 '사회적 관심'과 Erikson의 '친밀감'을 결부시켜 파악하기도 했다. 하지만 Dolinger 등(1996)의 경우에는 개별성과 관계성을 언급했지만 이에 대한 명료한 개념적 정의를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과 다소 다르게 정의한 김동직(1999)은 개별성을 '독립과 자율 및 개성을 추구하며, 자기주장적이고 자기 확신이 강하며,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경향'으로 보고, 관계성을 '자기와 세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남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타인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과 비교적 자유롭게 정서를 교환하는 경향'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김동직(1999)은 이 2개의 측면은 한 개인에게 모두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김동직(1999)이 한국과 독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성과 관계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양측 대학생은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은 경우는 심리적 적응 수준이 높았으나 두 특성이 모두 낮은 경우는 심리적 적응 수준이 가장 낮았다. 또한 개별성은 높지만 관계성은 낮은 집단과 반대로 개별성은 낮지만 관계성은 높은 집단은 고독감을 제외한 모든 심리적 적응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를 고려해 보면, 이들은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개별성과 관계성 모두가 높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자기 개념을 가질 수 있고, 둘 다 낮은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기 개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문화를 감안하지 않고 순수하게 개념의 특징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개별성과 관계성은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김동직, 1999)가 강하다. 김동직(1999)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Sampson(1981, 1988)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을 하나의 소우주로서 바라보고 개인이 완결된 실체로서 규정되는 경향이 높다고 보았고, 이에 대비되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여성적이며 허약한 것, 심지어는 병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그는 평가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북한과 남한이라는 별개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영향받기 때문에 개별성과 관계성의 문화 관련성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과 관계성 형성과 변화가능성

앞서 언급한 개별성과 관계성의 문화 관련성 측면에서 보면, 북한을 떠나오기 전 북한이탈주민 즉 북한 주민들의 개별성과 관계성은 북한의 문화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임현진(1999)에 따르면 북한의 문화는 이념적으로는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가치 측면에서는 집단의 이익과 혁명적 사고를 중시하고, 전통 지향적 사고를 가지며, 가족적, 연대적, 강한 민족의식, 유교의식 등을 가진 것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것은 개인 심리 차원에서 분석한 경우에도 유사하다(예, 민경환, 1994). 민경환(1994)은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통제된 공동작업, 수동성, 집단주의, 협동성이 강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북한의 특징은 성영신, 서정희 및 심진섭(1993)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김동직(1999)의 주장에 따른다면,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는 시점에서는 개별성은 그리 높지 않고 관계성은 높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에 대해 북한에서 강조되는 주체성과 관련하여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즉, 주체성을 개인의 독자적인 원칙에 충실하게 행동하려는 경향으로 파악함으로써 개별성과 관련지어 보려고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김일성(1965; 정성장, 2004에서 인용)은 주체사상에 대해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연설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는 북한 주민들 개개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갖도록 하기보다는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주체성이 개별성을 높인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된다. 이 점에 대해 정성장(2004)은 주체사상을 북한의 지도체제 강화를 위한 목적과 방식으로 통치이념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1] 이는 곧 주체성이 북한 주민 개개인에게 내면화되었다기보다는 북한 체제라는 집단을 위해 개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말한다.

한편,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집단중심의 체제 때문에 김동직(1999)과 본 연구에서 정의한 관계성을 진정으로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관계성의 정의에서 '자기와 세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과 '남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타인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관계성이 강할 수 있지만, '타인과 비교적 자유롭게 정서를 교환하는 경향성'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서재진(1995)이 말한 '북한 주민의 이중적 사회의식과 독고순이 말한 '위장 선호(preference of falsification)' 경향이 강

1) 정성장은 주체사상이 김일성의 연설 이후에 '김일성주의화(1974-1981)'로, 이것이 다시 '김일성-김정일주의화(1982-1994)'로, 또 다시 '우리식 사회주의론, 붉은기 담론,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1994-현재)'으로 이어지면서 통치이념화되었다고 분석하였고, 이를 학계에서는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하다고 보는 면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남한에 정착해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러한 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개별성은 낮고 관계성은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을 이탈한 후에 신변의 안전과 관련하여 대인관계의 양태가 변화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개별성과 관계성이 변화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대체로 제 3국에서 약 3년 11개월(이금순, 강신창, 김병로, 김수암, 안혜영, 오승렬, 윤여상, 이우영, 임순희, 최의철, 2003)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은둔형 생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의심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관계성의 구성 요소들인 사회성, 대인민감성, 정서적 표현성, 관계 중시가 적음을 의미하므로 이들이 북한에서 가졌던 관계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단, 이들이 남한에서 정착을 시작하면 중국 등지에서의 생활과는 달리 일단 피해가능성을 강하게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앞서 제기한 관계성 관련 성향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관계성은 북한이탈 과정과 제 3국 등지에서는 낮아질 수 있지만 입국 후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크며, 개별성은 북한 내에서는 낮았겠지만 북한을 이탈한 이후부터는 독립생활을 선택하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뒤늦게 서서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개인주의와 개별성이 북한보다는 다소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남한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남한 문화는 1980년 Hofstede의 연구 결과에서, 개인주의는 18점으로서 조사대상 53개국 중 43위로서 매우 낮고, 이 개인주의의 반대극인 집단주의가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 상태이었다. 하지만, 남한 문화는 매우 역동성이 크고, 지속적으로 서구화와 미국화를 하면서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성열과 안창일(1990; 채정민, 1993에서 재인용)이 진단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점차 고학력화되면서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점차 변화해나가는 과도기에 있고, 나은영과 차재호(1999)도 이와 유사하게 한국 사회가 젊은층과 고학력/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가 증가하고, 탈물질주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주춤하면서 개인의 자기주장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규석과 신수진(1999)은 한국 사회의 가치와 문화가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변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남한 문화가 집단주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문화보다는 훨씬 집단주의적 경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한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와 연관이 높은 개별성이 북한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느끼는 것은 북한의 문화 혹은 제 3국 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측면까지 감안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때 북한의 문화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남한보다는 훨씬 집단주의적이고, 제 3국이 주로 중국, 몽고, 캄보디아 등으로서 전체적으로 한자문화권이며, 유교와 불교에 영향권 하에 있으며, 한국보다는 저학력, 저개발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보다는 집단주의적 경향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탈주민들이 남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상당히 개인주의화된 문화라고 지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남한 문화에서 살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이 문화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의 폭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첫째는, 개별성과 관계성이 성격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고 이 성격적 측면은 가변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생의 상당 기간과 결정적 시기를 북한에서 지냈기 때문에 남한 생활에서의 영향을 받더라도 그 폭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개별성과 관계성의 변화를 경험할 것이고, 이것은 남한 거주 기간, 인생 대비 남한 거주 기간의 비율, 연령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별성과 관계성은 인생의 발달 과정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 연구는 거의 없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주장된다. 그 일례로서, Guisinger와 Blatt(1994)는 Erikson의 전 생애 발달 관점에서 보면 이 개별성과 관계성도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2개의 요소는 상반된 개념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발달 과정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심리적 발달을 상호보완적으로 촉진하므로(김동직, 1999) 발달 과정상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

그런데, 이 개별성과 관계성은 그 자체로서는 자기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궁극적으로는 심리적 적응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주라는 상황에서 더 더욱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쟁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남한 문화에서 개별성이 많이 요구되고, 남한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면서 다양한 적응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최근에 심리적 적응에 대한 관점이 Lazarus(1976)에 영향을 받아서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서 개인이 노력하는 '적응(adjustment)'이라는 점과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개별성과 관계성에 대해 조명하고 이것이 실제로 남한 주민들과 관계 맺는데 어떠한 작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주민으로 살고 있을 때, 제 3국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남한에 입국한 후라는 3가지 시점에서 개별성과 관계성 수준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현실적 연구 여건 상 맨 마지막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성별, 도착 연령별, 가족 동반 유무별, 제 3국 체류 기간별, 정착경과기간별, 직업별로 개별성과 관계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남한 주민과 관계 맺는 것과 관련하여 남한 주민 중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 대한 신뢰감, 지각된 차별감을 파악하며, 개별성과 관계성을 각각 고저 수준으로 2분하여 조합한 유형에 따라 심리적 적응의 한 측면인 자기효능감을 파악하였다. 김동직(1999)에 따르면 이

유형들에서 심리적 적응에 제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별성과 관계성이 둘 다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 유형이고, 둘 중에 하나는 높고 다른 하나는 낮은 경우에는 높은 것에 의해 심리적 적응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둘 다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작용이 전혀 일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심리적 적응에 대해 제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파악한 개별성과 관계성의 수준을 파악한 이유는, 개별성과 관계성이 자기 개념이라는 안정된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발달단계상 혹은 문화의 영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 노력은 향후 이러한 변화과정을 추적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남한 주민과 관계 맺는 것과 관련지어 파악하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개별성과 관계성의 개념 정의가 실제 남한 주민들과 어울리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여기서 신뢰감을 선택하였고 그 대상을 남한에서 살아가면서 접촉하는 남한 주민 중 한 사람을 머리에 떠 올리고 이에 대한 응답을 하게 한 이유는 남한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래 이 신뢰감은 남녀 연인 관계에서 적용되어 왔던 것인데, 이를 Rotter(1980)는 이 관계 이외의 상황 즉,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말, 약속, 진술에 대한 개인의 일반화된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 신뢰감은 단순한 표면적 지지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적 지지' 개념보다 더 깊이 있는 관계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서 선택하였다. 그런데, 이 신뢰감을 일반적인 대인관계에 적용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아서 이 신뢰감이 다른 심리적 측면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는 부득이 남녀 연인 관계에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신뢰감의 개념에 대한 실증 연구의 결과들에 대해서도 파악해봄으로써 그 개념의 실체와 실효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신뢰감이 높으면 연인 관계에서 확신을 증진시키고 상호 만족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향을 보였고(Driscoll, Davis, & Lipetz, 1972), 다른 사람의 행동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호간의 최대의 공리(joint gain)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으며(Larzelere & Huston, 1980), 이성간의 보다 민감하고 협력적인 지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은정, 2002). 이러한 경향을 일반적인 대인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도 남한에서 특정한 남한 주민에게 신뢰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기효능감과 같은 적응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각된 차별감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지각된 차별감을 많이 가지는 것은 자기보호적인 방식으로 귀인하는 경우가 많다(Crocker, Voelkl, Testa & Major, 1991). 그래서 지각된 차별은 북한이탈주민들처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리적 문화적응(psychological acculturation)과 부적 상

관을 보였다는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예, Phinney & Chavira, 1995). 그리고 지각된 차별과 심리적 지표인 우울감과는 정적 상관(예, Rumbaut, 1995)을 보이고, 생활만족도와는 부적 상관(Koomen & Frankel, 1992)을 보이며, 스트레스 수준과는 정적 상관(Dion, 1986)을 보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지각된 차별감은 자기보호적 관점이 크므로 자기보호할 필요가 없이 관계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 차별감도 적게 지각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개인의 독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이 자기보호적 기능이 별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관계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지각된 차별감을 적게 지닐수록 자기효능감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적응 지표와 관련지어 파악한 이유는, 개별성과 관계성에 대한 기존 연구(예, 김동직, 1999)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이 심리적 적응 지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Bandura, 1977)'으로서 개인차 변인으로 취급되어 왔고, 이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이나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낮고, 이와는 반대로 이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적 흥분을 잘 하고, 심한 무력감에 빠지며 문제나 상황을 실제보다 더 어렵게 지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보고가 있다(Beck, 1967). 이러한 점에서 자기효능감은 불안이나 우울감과 같은 최종적인 심리적 적응 지표의 성격은 적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기준으로 보는 적응적 지표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andura(1993)에 따르면, 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로 성공적인 시나리오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고 보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과 같이 환경의 변화, 이 중에서도 특히 대인간 관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적응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방법

연구 대상자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변형된 스노우볼링(snowballing) 방식을 적용하여 총 201명을 표집하였다. 최종 분석은 불성실하게 응답한 20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1명(남자 102명, 여자 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34세 7개월(SD=10세 5개월)이었고, 연령 범위는 20세에서 68세까지이며, 평균 정착 경과 기간은 약 2년 7개월(SD=1년 7개월)이었고, 평균 북한이탈 경과 기간은 약 4년 9개월(SD=2년 5개월)이었으며, 평균 해외 지체 기간은 약 2년 2개월(SD=2년 1개월)이었다.

측정 도구

개별성과 관계성 : 김동직(1999)이 개별성과 관계성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 12개 문항씩 총 24개 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완전히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도록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개별성이 .62, 관계성이 .63이었다.

신뢰감 : 원래 Rempel, Holmes 그리고 Zannas(1985)가 16개 문항으로 구성한 것을 이은

정(2002)이 번안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 차원으로서 믿음(faith), 의지(dependabilit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두고 있고, 7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래 평정 기준을 연인관계 교제중인 이성이나 배우자로 규정하였던 것을 변용하여 '남한사람 중에서 가장 친한 사람'으로 변경하여 평정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83이었다.

지각된 차별감 : Leibkind와 Jasinskaja-Lahti(2000)가 개발한 척도로서, 차별감과 인종주의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구직신청하기, 직장 분위기 등과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종주의적 문제를 겪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상생활에서 '북한이탈주민이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채정민과 한성열(2003)이 9개 문항으로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들 각 문항에 대해서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83이었다.

자기효능감 : Bandura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토대로 Sherer, Maddux, Mercandate, Prentice-Dunn, Jacob 그리고 Rogers(1982)가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하위 척도로서 일반적 자기효능감(17개 문항)과 사회적 자기효능감(6개 문항)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혜영(199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항목 중 1개 항목(23번)이 문항-전체 점수 간 상관이 .20보다 현격하게 낮아서 제외하고 총 2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성과 관계성과 자기효능감의 전체적 관계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를 전체에 대해 산출했고 그 값은 .87이었다.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과 관계성의 수준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북한이탈주민들의 개별성과 관계성에 대해 전체 평균과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의 평균을 살펴보았다(표 1 참조).

조사대상자 전체의 개별성 점수 평균은 3.05(SD=.40)이고 점수 분포는 2.2~4.3점이었고, 관계성 점수 평균은 3.20(SD=.41)이고 점수 분포는 2.1~4.2점이었다. 그리고 김동직(1999)의 연구결과와 간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별도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n=46)에 대해 파악했다. 김동직(1999)의 연구에서 개별성은 3.05(SD=.51)이었고, 관계성은 3.27(SD=.34)이었다. 따라서 이들 간에 직접적인 차이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 개개인들이 가지는 개별성과 관계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paired-t 검증을 했는데, 전체 조사 대상자 평균에서는 개별성보다 관계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각 변인들로 보면, 먼저 성별과 가족동반여부별에서는 모두

관계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하지만 도착 연령대별에서는 20대와 40대만이 유의미하게 관계성이 높았고, 제 3국 지체 경과 기간별(제 3국 체류 기간)에서는 4년 이상자들만이 관계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개별성과 관계성을 별도로 분석하였는데, 여기서는 대부분의 분석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관계성이 지체 경과기간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여기서 4년 이상 체류자가 제일 높은 관계성을 보였다. 이 4년 이상의 제 3국 체류자는 개별성보다도 높은 관계성을 지녔고 제 3국 체류 기간이 4년 미만인 사람들보다 높은 관계성을 보여서 제 3국 체류 기간이 관계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 이후 개인별로 보이는 개별성과 관계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표 2 참조), 현재 연령대별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관계성이 개별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착 경과기간별에서는 2년차, 3년차, 4년차에서는 관계성이 개별성보다 높았는데, 1년차와 5년차 이상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직업별에서는 직장인과 학생의 경우 관계성이 개별성보다

표 1. 정착 초기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과 관계성

		개별성	관계성	*paired-t* 값
전체	(n=181)	3.05(.40)	3.20(.41)	-4.638***
성별	남자 (n=102)	3.08(.42)	3.22(.43)	-3.493***
	여자 (n= 79)	3.02(.36)	3.17(.38)	-3.036**
	t 값	.949	.796	
도착 연령대별	20대- (n= 79)	3.00(.36)	3.17(.37)	-3.472***
	30대 (n= 47)	3.10(.42)	3.16(.39)	-1.164
	40대 (n= 25)	3.07(.43)	3.38(.45)	-3.176**
	50대+ (n= 8)	3.24(.56)	3.19(.44)	.427
	F 값	1.208	2.149	
지체 경과기간별	1년- (n= 52)	3.07(.39)	3.12(.39)[b]	-.917
	2년- (n= 33)	3.00(.38)	3.10(.38)[b]	-1.319
	3년- (n= 39)	3.09(.39)	3.18(.38)[b]	-1.369
	4년- (n= 29)	3.02(.34)	3.21(.41)[b]	-1.996
	4년+ (n= 28)	3.04(.48)	3.49(.42)[a]	-5.356***
	F 값	.334	4.985***	
가족동반여부별	단독 (n= 60)	3.11(.42)	3.26(.46)	-2.834**
	가족일부(n= 78)	3.03(.37)	3.17(.39)	-2.818**
	가족모두(n= 25)	3.10(.38)	3.30(.27)	-2.278*
	F 값	.742	1.350	

* $p < .05$, ** $p < .01$, *** $p < .001$

[a, b]는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임.

유의미하게 높았고, 무직(주부 포함)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인생 대비 정착 경과기간 비율[2]에서는 5% 미만 집단과 5~10% 집단, 그리고 15~20% 집단에

표 2. 정착 후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과 관계성

		개별성	관계성	*paired-t* 값
현재 연령대별	20대 (n=60)	3.01(.37)	3.17(.37)	-2.932**
	30대 (n=71)	3.06(.41)	3.20(.40)	-2.994**
	40대 (n=31)	3.07(.32)	3.18(.50)	-1.230
	50대+(n=19)	3.14(.53)	3.31(.44)	-1.920
	F 값	.575	.580	
정착 경과기간별	1년차 (n=17)	2.98(.36)ab	3.00(.50)	-.095
	2년차 (n=45)	3.06(.39)a	3.24(.38)	-3.061**
	3년차 (n=43)	3.12(.44)a	3.26(.35)	-2.041*
	4년차 (n=24)	2.84(.25)b	3.18(.51)	-3.258**
	5년차+(n=52)	3.10(.40)a	3.18(.39)	-1.574
	F 값	2.596*	1.459	
인생대비 정착 경과기간 비율별	5%- (n=62)	3.06(.41)	3.19(.45)	-2.337*
	5~10% (n=65)	3.09(.38)	3.26(.39)	-3.321***
	~15% (n=38)	2.95(.42)	3.09(.40)	-1.892
	~20% (n=10)	2.98(.23)	3.29(.39)	-2.444*
	20%+ (n= 6)	3.28(.29)	3.15(.21)	.745
	F 값	1.429	1.111	
이탈 경과기간별	2년- (n=11)	3.17(.42)	3.21(.46)bc	-.295
	2년~4년(n=46)	2.92(.31)	3.05(.41)c	-2.354*
	~6년(n=78)	3.10(.41)	3.18(.37)bc	-1.811
	~8년(n=25)	3.08(.38)	3.25(.34)bc	-1.795
	~10년(n=10)	3.08(.27)	3.40(.36)b	-1.928
	10년+ (n=11)	3.08(.62)	3.68(.45)a	-4.226**
	F 값	1.539	5.521***	
직업별	직장인 (n=53)	3.03(.33)	3.31(.46)a	-4.450***
	학생 (n=46)	3.13(.45)	3.27(.34)a	-2.199*
	무직 (n=52)	3.02(.36)	3.03(.41)b	-.227
	F 값	1.807	6.923***	

* $p < .05$, ** $p < .01$, *** $p < .001$

a, b, c는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임.

2) '인생대비 정착 경과기간 비율'이란, 인생 즉 현재의 나이를 기준으로 볼 때 현 정착지에서 거주한 기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이가 40세인데, 남한에서 10년을 거주했다면 그 비율은 '10/40'이므로 25%에 해당된다.

서 유의미하게 개별성보다 관계성이 높았다. 이탈 경과 기간별에서는 2년 이상 4년 미만과 10년 이상에서 개별성보다 관계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착 경과기간별에서 2년차부터 4년차까지의 집단에서 관계성이 개별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점과 인생 대비 정착 경과기간별에서는 20% 미만 집단 중에서 10~15%에서만 그 경향성이 약할 뿐 관계성이 개별성보다 높았다. 이들 결과는 남한 주민들이 관계성이 개별성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단, 정착 경과기간이 1년차와 5년차 이상의 경우에는 인생 대비 정착 경과기간별에서 20%이상인 경우에서만 독특하게 개별성과 관계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개별성과 관계성을 별도로 살펴보았는데, 현재 연령대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착 경과기간별에서는 개별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는데 2년차, 3년차, 5년차 이상이 높았고 4년차가 낮았다. 이탈 경과기간별에서는 개별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관계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10년 이상에서 제일 높았고 2년 이상 4년 미만에서 제일 낮았다. 직업별에서는 관계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는데 직장인과 학생이 높았고 무직이 낮았다. 여기서 이탈경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서 관계성이 제일 높은 것은 앞서의 제 3국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남한 생활의 영향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남한에서 살아가는 기간보다 어떠한 일을 하는가와 관계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관계성의 수준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의해 영향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성이 높은 경우에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을 선택하여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생활을 함으로써 이들의 개별성과 관계성이 영향받아서 변화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단, 이러한 경향은 인생의 전체 기간에 대한 정착경과 기간의 비율과 이들의 개별성과 관계성이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남한 생활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개별성과 관계성이 이들의 남한 내 적응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지각된 차별과 신뢰감과의 관련성을 일반적 상관분석과 정착 경과 기간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부분 상관분석을 하였다(표 3 참조). 여기서 모든 상관 관계가 정착 경과 기간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와 통제한 결과 간에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먼저 개별성과 관계성은 일반적 상관분석과 부분 상관분석 모두에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것은 원래의 개별성-관계성 정의에서는 상호독립적이라고 밝혔고, 한국인과 독일인에 대해 검증한 결과에서 무상관에 가까운 결과가 보고(김동직, 1999)된 점에 비추어보면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개별성은 신뢰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지각된 차별감과 자기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개별성을 많이 가지는 것이 남한에서 남한 주민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에는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자기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으로 느끼기에는 불충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에 비해 관계성은 지각된 차별감과는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자기효능감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신뢰감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관계성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남한 주민들에게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해주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으로 느끼게 하지만 남한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갖게끔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가능성을 확인하게 한다. 그리고 지각된 차별감은 신뢰감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자기효능감과는 부적인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신뢰감은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에는 신뢰감같은 깊은 인간관계에서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 관계에서의 차별감 등이 적은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관계성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북한 이탈 경과기간을 통제한 부분상관에서도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관계성 유형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

북한이탈주민들의 개별성과 관계성 각각을 앞서 언급한 바대로 중앙치를 중심으로 2분하여(높음-낮음) 조합한 4개의 유형에 따라 각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해보았다(표 4 참조). 개별성의 고집단의 평균은 3.40(SD=.28)이고, 저집단의 평균은 2.77(SD=.20)이었으며, 관계성의 고집단의 평균은 3.57(SD=.25)이었고, 저집단의 평균은 2.91

표 3.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과 관계성과 지각된 차별, 신뢰감,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개별성	관계성	지각된 차별감	신뢰감	자기효능감
개별성		**.44*** **	**.11**	**.28*** **	**.08**
관계성	*.45*** *		**-.26*** **	**-.03**	**.29*** **
지각된 차별감	*.13*	*-.20*** *		**-.05**	**-.47*** **
신뢰감	*.28*** *	*.00*	*-.07*		**.05**
자기효능감	*.03*	*.21*** *	*-.43*** *	*.08*	

* $p < .05$, ** $p < .01$, *** $p < .001$

우측 상단 굵은 글씨체는 일반 상관이고, 좌측 하단 이탤릭 글씨체는 북한 이탈 경과기간을 통제한 부분상관임.

표 4. 개별성-관계성 고저집단의 조합에 따른 유형과 이탈 이후 경과기간 간 교차분석

	유형 1 개별성 저 관계성 저	**유형 2** 개별성 저 관계성 고	**유형 3** 개별성 고 관계성 저	**유형 4** 개별성 고 관계성 고	X^2
사례수(n=181)	66	33	36	46	9.449**

** $p < .05$

(SD=.25)이었다.

이 4개의 유형에서 개별성도 낮고 관계성도 낮은 집단이 66명으로 유의미하게 제일 많았다(표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김동직(1999)의 연구에서는 4개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수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던 것과는 매우 상이한 것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낮은 심리적 적응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점이다.

다음은 이 4개의 유형을 중심으로 지각된 차별감, 신뢰감,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해 보았다(표 5 참조).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낮은 유형 1 집단이 지각된 차별감도 높고, 자기효능감도 낮고 신뢰감은 중간 정도의 양태를 보여서 남한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부적절하고 자신이 잘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은 유형 4 집단은 지각된 차별감은 높지만, 신뢰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계성만이 높은 유형 2 집단은 지각된 차별감과 신뢰감이 다 낮으나 자기효능감은 높아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개별성만이 높은 유형 3 집단은 지각된 차별감과 신뢰감이 다 높은 상태에서 중간 정도의 적응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논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남한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서 개별성-관계성이라는 성격적 측면을 조명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의 개별성과 관계성이 남한 주민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김동직(1999)의 연구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들 결과 간의 시차가 5년여 정도 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성격적 측면이라는 점과 문화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이 정도의 시차가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고 진행하였다. 그 결과 양 집단의 점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표 5. 개별성-관계성 고저집단의 조합에 따른 유형과 관련 변인의 변량분석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M(SD)	*F* 값
개 별 성	낮 음	낮 음	높 음	높 음		
관 계 성	낮 음	높 음	낮 음	높 음		
지각된 차별감	2.32(.64)^{a}	1.76(.63)^{b}	2.31(.67)^{a}	2.38(.76)^{a}	2.21(.70)	5.583***
신뢰감	3.91(.64)^{ab}	3.65(.76)^{b}	4.14(.69)^{a}	4.19(.70)^{a}	3.98(.71)	4.734**
자기효능감	3.25(.47)^{b}	3.55(.46)^{a}	3.34(.51)^{ab}	3.50(.55)^{a}	3.38(.51)	3.711*

* $p < .05$, ** $p < .01$, *** $p < .001$

$^{a, b}$는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임.

비교적 안정적인 측면으로 개별성과 관계성을 조명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던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의 동질적인 개별성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내에서의 개별성과 관계성을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의 문화와 체제의 특징을 토대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서 추정해 본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개별성이 촉진될 여건은 적고, 관계성이 촉진될 여건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서 북한 주민들은 개별성은 낮고, 관계성은 높은 형태라고 추정하였었다. 그렇다면 앞서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과 관계성의 수준이 유사하다는 점은, 남한의 문화와 북한의 문화가 특징, 여건, 작용 기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남한 주민은 남한 문화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문화에 의해 각각 주로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보이는 이러한 개별성과 관계성이 북한에서와는 달리 변화된 것이라면 이러한 해석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북한이탈 후 제 3국 체류 경험이 길고, 그 곳에서 이러한 것이 해당 문화에 의해 변화하거나 장기간의 도피나 은거 생활에 의해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 3국 체류 기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개별성은 이 기간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관계성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경과자의 경우 그보다 적은 경과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관계성을 보였다. 이것은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생활배경과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독특하게 형성하는 심리적 경향성인 동료효과(cohort effect)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체류기간의 효과를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입국해서 정착해나가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남한 문화에 의해서나 자신의 독특한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개별성과 관계성이 변화될 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정착 경과 기간에 따라 개별성과 관계성을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관계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개별성에서는 다른 년차에 비해 4년차에서만 유의미하게 낮았고 1년차는 중간 정도에 해당되었다. 그런데, 이는 적응의 주기(cycle)상 다소 불규칙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착 경과 기간과 제 3국 체류 기간의 합(合)에 의한 이탈 경과 기간별에서는 제 3국 체류 기간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이는 정착 후의 영향보다는 제 3국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남한에서 직접적으로 남한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개별성과 관계성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직업별로 살펴보았는데, 개별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관계성에서는 직장인(M=3.31)과 학생(M=3.27)이 무직(M=3.03)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여기서 이 결과에 대해 이들이 남한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고 접촉하였기 때문에 변화한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이러한 직업을 선택한 것이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무직의 경우에는 개별성(M=3.02)과 관계성(M=3.03)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paired-t=

-.227, p=.822), 직장인의 경우에는 개별성(M=3.03)보다 관계성(M=3.31)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학생의 경우에도 개별성(M=3.13)이 관계성(M=3.27)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것은 남한 주민들을 상대적으로 밀접하고 빈번하게 접촉해야 하는 일의 성격 상 남한 주민들과의 관계 압력을 많이 받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관계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지니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관계성을 높이는 것이 적응에 유리하다고 암암리에 판단해서 이러한 경향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성영신 등(1993)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즉, 이 연구에서는 남한에서 개별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문화가 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연고주의에 의해 남한 사회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생략) 남한 사회에서는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취미클럽 등 여러 가지 집단에 소속되어야만 외롭지 않다....(생략)'고 응답했고 남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고관계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의식도 이들은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개별성과 관계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개별성 분석에서도 남자 대학생(M=3.07, SD=.41)과 여자 대학생(M=3.21, SD=.50)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관계성에서도 남자 대학생(M=3.24, SD=.31)과 여자 대학생(M=3.33, SD=.38)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김동직(1999)의 연구에서 남한 남자 대학생들은 관계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개별성에서는 남자 대학생(M=3.19, SD=.53)이 여자 대학생(M=2.92, SD=.47)보다 유의미한 높았다. 이러한 것은 흥미로운 것으로서, 성별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남한 주민들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진경(2002)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는 남성성 위주로, 여자는 여성성 위주로 성역할을 규정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점이 드러났고, 앞서 Bem(1974)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개별성과 관계성과 유사한 측면을 다룬다는 점을 확인한 바를 토대로 볼 때, 오히려 북한이탈주민 남자들이 남성성에 가까운 개별성이 높고, 여자들이 여성성에 가까운 관계성이 높아야 하는데 이러한 점들이 유의미한 차이로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남한 주민들에게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점(김동직, 1999)이 특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김동직(1999)의 논문에서 남한 주민의 이러한 결과에 대해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결과에 대해서 대비적 관점에서 설명할 뚜렷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개별성과 관계성을 조합하여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집단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탈 후 변화가능성을 파악해보았는데, 제 3국 체류 기간은 역시 유형 상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 즉, 제 3국 체류기간이 긴 경우는 유형 2(개별성 저-관계성 고)가 많았고, 짧은 경우는 유형 1(개별성 저-관계성 저)과 유형 3(개별성 고-관계성 저)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역시 제 3국 체류 경험이 길수록 관계성의 증가 가능

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남한에서 직업별 관련성에서도 관계성이 높은 점과 관련지어 볼 때 적응적 가치가 개별성보다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4개의 유형을 인생 대비 정착 경과 기간 비율과 관련지어 보면, 유형 3(개별성 고-관계성 저)이 그 비율이 10% 수준으로 높고, 유형 1(개별성 저-관계성 저)과 유형 4(개별성 고-관계성 고)는 7% 수준으로 낮았다. 여기서 인생 대비 정착 경과 비율이 높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젊을수록 길기 때문에 아마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 비율이 높아서 남한의 개별성 증가 추세를 쉽게 내면화하는 문화적응 양상을 보인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별도로 이 유형별 연령 차이를 검증해 보았는데,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추세 상으로 볼 때 이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연령이 제일 낮았다는 점에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이들 4개의 유형을 토대로 사회적 관계와 개인의 적응 측면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각된 차별감에서는 유형 2(개별성 저-관계성 고)가 제일 낮고 나머지 유형이 높았다. 이는 유형 2를 지니는 것이 적응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상관분석에서 지각된 차별감과 관계성이 부적인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던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관계성이 높은 것은 최소한 부정적 측면의 적응적 문제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적응적 가치를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에 비해 신뢰감에서는 유형 3(개별성 고-관계성 저)과 유형 4(개별성 고-관계성 고)가 제일 높았고, 유형 2(개별성 저-관계성 고)가 제일 낮았다. 이것은 개별성이 타인을 신뢰하는데 더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독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남한에서 단순한 대인관계가 아닌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는 존재 즉, 애인같이 느낄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는 관계성보다는 개별성 즉, 자신에 대해 독립적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4개의 유형을 가지고 지각된 차별감과 같이 상대적으로 표면적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과 관련지어 볼 때는 관계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고, 신뢰감과 같이 상호 간에 깊은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과 관련지어 볼 때는 개별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성과 관계성이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적응의 한 지표와 관련지어 본 바에 따르면 관계성이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에 개별성은 그렇지 않음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지각된 차별감을 상정해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남한에서 이들이 살아가면서 타인들과 관계맺는 경향성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차별감을 덜 지각하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적응적 가치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중층적 구조 다시 말해 '관계성 → 지각된 차별감 → 자기효능감'과 같이 매개변인적 관계 구조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설정에 근거가 되는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에는 이러한 매개변인적 관계 구조로 설정한 연구가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가 밝힌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과 관계성에 대한 다양한 결과가 유익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첫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종단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촉이 정착 이후에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횡단적 연구 방법에 의해 종단적 연구 방법으로 도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조심스럽게 확대 적용하여 유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향후에 종단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명료하게 파악해낼 필요를 절감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첫째 측면과 관련된 문제로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연구에서 그렇듯이 북한 내 주민에 대한 접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기저선(baseline)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과 같이 Lazarus(1976)가 말한 '적응(adjustment)'이라는 관점을 이해하는데 큰 장애이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상황이 된다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 개별성과 관계성의 개념이 발달적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는 Guisinger 등(19994)의 견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대해 이 관점을 적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고, 성인 이후에도 발달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길호, 이지호 (1998). 친밀성과 공손표현 간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2(3), 5-37.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애순 (1993). 중년기 위기감(3) :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13(2), 1-14.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52.

독고순 (2001). 탈북주민의 가치정향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35(1), 149-174.

민경환 (1994).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통일. 심리과학, 3(19), 84-99.

서재진 (1995). 또 하나의 북한 사회-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나남출판.

성영신, 서정희, 심진섭 (1993). 남북한의 경제심리 비교.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247-277.

이금순, 강신창, 김병로, 김수암, 안혜영, 오승렬, 윤여상, 이우영, 임순희, 최의철 (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이은정 (2002). 애착에 따른 이성 간 지지 행동의 차이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수, 함주현 (2003). 초기 노년기의 외향성과 주거조건. 노인복지연구, 22, 219-241.

이장호 (1997). 북한출신 주민(탈북자 포함) 심리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성곡논총, 28(4), 서울: 성곡학술문화재단.

임현진 (1999). 남북한 통합의 사회문화적 접근: 의의, 현실 및 모색. 이정복, 신욱희, 이승훈, 임현진, 김광억, 이장호, 박삼옥, 조흥

식, 강현두,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99-143.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정성장 (1994). 북한의 통치이념. 2004년도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

정진경 (2002).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 자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163-177.

조영아 (2003). 남한 내 북한 이탈 주민의 자아방어기제 연구: 남한 주민 및 재한 조선족과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영아, 전우택 (2004).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67-186.

채정민 (1993). 내외집단에서의 자기주장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채정민, 김종남 (2004).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 사회 및 성격, 18(1), 41-63.

채정민, 한성열 (200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 사회문제, 9(2), 101-126.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ngyal, A. (1951). *Neurosis and treatment: A holistic theory*. New York: Wiley.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Boston: Beacon Press.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Bowen, M. (1966). The use of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Comprehensive Psychiatry, 7,* 345-374.

Bowlby, J. (1969).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Crocker, J., Voelkl, K., Testa, M. & Major, B. (1991). Social stigma: The affective consequences of attributional ambig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18-228.

Dion, K. L. (1986). Response to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relative deprivation. In J. M. Olson, C. P. Herman & M. P. Zanna (Eds.),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comparison: The Ontario symposium*(Vol. 4, pp. 159-179). Hillsdale, N. J.: Lawrence Eelbaum Associates.

Dolinger, S. J., Preston, L. A., O'Brien, S. P., & DiLalla, D. L. (1996).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of the self: An autobiographic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268-1278.

Driscoll, R., Davis, K., & Lipetz, M. E. (1972). Parental interference and romantic love: The Romeo and Juliet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1-10.

Guisinger, S., & Blatt, S. J. (1994).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Evolution of a fundamental dialectic. *American Psychologist, 49,* 104-111.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Hui, C. H. (1988). Measuremen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 17-36.

Kagitçibasi, Ç. (1994). A critical appraisal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Toward a new fomulation. In U. Kim, H. C. Triandis, Ç. Kagitçibasi, S-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 (pp. 52-65). London: Sage.

Koomen, W. & Frankel, E. G. (1992). Effects of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different forms of relative deprivation among Surinamese, a Dutch ethnic minority group.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 63-71.

Larzelere, R. E. & Huston, T. L. (1980). The dyadic trust scale : Toward understanding interpersonal trust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595-604.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3rd ed.). New York: McGrow-Hill.

Leibkind, K. & Jasinskaja-Lahti, I. (2000). The influence of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on psychological stress: A comparison of seven immigrant group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0,* 1-16.

McAdams, D. (1980). A thematic coding system for the intimacy mot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6,* 413-432.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Phinney, J. S. & Chavira, V. (1995). Parental ethnic socialization and adolescent coping with problems related to ethnic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5*(1), 31-53.

Redloff (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Rempel, J. K., Holmes, J. G., & Zanna, M. P. (1985). Trust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95-112.

Rotter, J. B. (1980). Interpersonal trust, trustworthiness, and gullibility. *American Psychologist, 35,* 1-7.

Rumbaut, R. G. (1994). The crucible within: Ethnic identity, self esteem, and segmented assimilation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8*(4), 748-794.

Sampson, E. E. (1981). Cognitive psychology as ideology. *American Psychologist, 36,* 730-743.

Sampson, E. E. (1988). The debate on individualism: Indigenous psychologies and their role in personal and social functioning. *American Psychologist, 43,* 15-22.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Greeley, CO: Westview Press.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J., & Clack, F. L. (1985). Allocentric versus id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Woike, B. A. (1994). The use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processes: Empirical studies of "separate" and "connected" ways of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42-150.

원고 접수: 2004년 8월 3일
수정원고 접수: 2004년 10월 12일
게재 결정: 2004년 10월 23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4. Vol. 9, No. 4, 793 - 814

North Korean Defectors' individuality-relatedness affecting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Jung-Min Chae
Korea University

Jong-Han Yhi
Daegu University

This study is performed to identify what factors make the North Korean Defectors be able to live along with the South Koreans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181 North Korean Defectors'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First of all, the North Korean defectors showed the nearly similar level of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to those of the South Koreans, and relatednes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dividuality in both groups. Interestingly, however, though there was sexual difference for the South Korea undergraduates, there was not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n we analyzed the data to see if the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can be changed after defecting from the North Korea. the results is that when stay period in the third nation such as China is very long(ex, about 4 years), relatedness is significantly high. Considering on the occupation factor, employees and students demonstrat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relatedness than unemployees. Also we analyzed the correlation of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with perceived discrimination, feeling of trust and self-efficacy, to find out how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work on social interaction with the South Koreans. The results indicate that individuality is correlated significantly positively with feeling of trust, and relatedness is correlated negatively with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ositively with self-efficacy.

Key Words : culture, psychological adaptation, North Korean Defector, individuality, relatedness